

서울집 팔면 2억 남는데 전남은 2500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분석

서울 주택 투자수익률 71%

전국 최저 전남의 8.6배

서울의 주택을 팔아서 얻는 평균 양도차익이 2억원을 훌쩍 넘었다. 전남의 평균 양도차익은 2500여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을 10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을 2016년 매각해 생긴 양도차익은 거래 1건당 평균 2억1558만원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한 이들은 평균 3억 447만원에 서울 주택을 샀다가 평균 5억3181만원에 팔았다. 여기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하면 2억원이 훨씬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3199만원이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액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봉급 생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년 가까이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규모의 시세 차익이 서울에 집을 샀다가 팔 때 생기는 셈이다.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는 2014년에는 건당 1억4915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2억607만원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 접어들면서 또 늘었다.

양도차익은 서울이 타 지역보다 훨씬 컸다. 2016년 주택 거래 1건당 양도차익의 전국평균은 8666만원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됐다.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이었다. 이곳의 주택을 팔면 거래당 평균 2521만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 차익은 전남의 주택을 매각해 얻는 차익의 약 8.6배에 달한다.

평균 양도차익을 평균 취득 가격으로 나눈 주택 투자 수익률은 서울이 70.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46.9%)의 약 1.5배에 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강남

등 인기 지역에 이른바 '뜰뜰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양도차익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5억8160만원이었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7613만원이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완전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사례도 거래 1건으로 집계하므로 1건의 거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비교용 거래, 과세 기준에 미달한 거래, 미신고 거래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물품구매·임대 수익계약 등 광주도시철도공, '제멋대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소모성 물품 구매나 임대 수익계약, 사업 위수탁 협약 등을 제멋대로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광주시가 공개한 '2017년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종합 감사 결과 부적정행위 20건이 적발돼 신분상 조치 10명, 기관경고, 재정상조치 423억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낙찰률 88% 이상으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익계약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익계약으로 처리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최대낙찰률을 적용해 2인 이상 수익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계약금액이 4억1230만원6000원 규모지만 실제로는 4억6733만원에 계약했다. 또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물품구매담당 전결로 지출결의가 이뤄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역 구내 점포 등을 임대하면서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점포 3건, 기간 만료된 점포 2건에 대해 수익계약으로 임대했다. 임대료 산정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임대점포 전대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신광조 이사장 고소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광조 광주 관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 시장은 11일 "지난 9일 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이 지난해 11~12월 페이스북과 댓글을 통해 윤 시장이 조선훈 독문과나 국문과 입학 후 의대로 편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조선훈 의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기회주의자', '무능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 등으로 윤 시장을 비유·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허위·비방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윤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게재, 개인정보를 알려 사생활까지 침해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산구 산하 기관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민형배 관산구청장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시석 전남도의원 장성군수 출마 선언

윤시석 전남도의원(56·정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장성지역 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 장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선 도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사회단체를 이끌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 온 경험으로 '새로운 장성 건설, 소통과 화합의 장성'을 만들겠다"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그는 ▲청렴한 군수 ▲공평한 행정을 펴는 군수 ▲낮은 자제로 군민을 섬기는 군수 ▲농민과 소상공인 소득을 높여주는 군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군수 ▲다음세대들이 장성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성을 만들어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ha당 78만8382원... 64% ↓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ha(3000평)당 78만838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211만원)보다 63.8%인 132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수확기 쌀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를 1ha당 78만8382원, 전국 총 지급액은 5392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도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1조4900억원과 비교하면 63.8% 줄었다.

전남지역 총 지급액은 1161억원으로 2016년산(3201억원)보다 2040억원 감소했다. 전남도는 11만2000여 ha에 농가에 직불금을 설 예정 지급할 예정이다.

쌀 변동직불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최근 쌀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18만8000원)보다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낮으면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은 80kg당 15만4603원으로, 2016년산(12만9711원)보다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도네시아 버스 전도 27명 사망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탄제랑의 한 병원에 버스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10일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국내 여행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전도돼 최소 2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등 정보화 계획 확정

6개 분야 60개 사업

전남도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등 6개 분야 60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가 정보화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발표한 '2018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민 중심의 스마트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농업·해양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축적하고 이미 보유한 정보는 민간에 개방해 신규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와 시군의 행정업무

를 개선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방범, 재난재해,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41억 원을 들여 담양·고흥·해남 3개 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향후 CCTV와 사물인터넷(IoT)·모바일 등을 결합해 CCTV 주변에서 위험상황 자동인지·신고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반을 조성한다.

신체·경제적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게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50대를 보급한다. 또 4000여 명에게 정보화교

육을 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사람의 그린(중고) PC 370대 무료 보급도 추진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흡소 펌 형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SNS 등 홍보에 활용토록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한 공모 사업으로 5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농수특산

물 상품화 및 위생 시설비에 지원한다.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도민의 통신투자 절감을 위해 주요 관광지 및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주요 관광지, 공원, 캠핑·야영장 등 56개소에 10억 원을 들여 와이파이망을 구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포, 여수, 나주, 광양 지역 270대 시내버스에 1억 원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망을 설치한다. 휴대전화 난청지역 17개소의 통신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문형석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해 행정을 혁신하고, 안전·복지·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